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의 기능과 의미

이 병 직*

차 례

- | | |
|---------------------|---------------------|
| 1. 들머리 | 3) 위기 해소와 결핍의 충족 |
| 2.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의 기능 | 3.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의 의미 |
| 1) 재산 다툼과 송사의 발생 | 4. 맺음말 |
| 2) 뇌물 공여와 부당한 판결 | |

국문초록

이 글은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송사소설에서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대립과 음모가 일어나고, 송사가 발생하여 재판이 진행되며, 심지어 살인까지 발생하였다. 따라서 재물은 송사의 발생 동인이 되며 서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 핵심 소재가 된다. 또한 재물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의 기능을 하여 잘못된 판결로 귀결됨으로써 사회의 부조리를 담고 있다. 한편, 재물은 어려움에 처한 인물이 위기를 벗어나는 수단이 되거나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 금성고등학교 교사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재물 관련 송사소설은 현실적인 소재와 일상의 인물이 등장하여 현실적인 인과논리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재물은 물질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비뚤어진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신분관계의 역전을 일으키기도 하며, 친소의 거리를 조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물 관련 송사소설은 동일 소재 다른 서사물에 비해 인물간의 대립관계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현장을 생동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현상의 찌푸린 반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송사소설, 재물, 뇌물, 잘못된 판결, 탐욕, 현실성

1. 들머리

재물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둘러싸고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대립과 갈등 및 다툼이 있어 왔다. 재물이 가지는 사회적 힘은 인간의 삶을 분리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며, 때로는 가치를 전도하는 등 현실에서 삶을 움직이는 주요한 변수이자 결정적 힘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회 변동기에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는데, 임병양란을 겪은 17세기 이후 조선은 상공업이 성장하고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종래의 관아도시가 상업도시화하고 교통중심지의 정기장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설시장, 나아가 상업도시가 발달해감으로써 경제적인 이해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대두하였다. 17세기 후반기부터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후 각종 부세의 일부를 현물 대신 돈으로 받게 되어 화폐유통은 급격히 확대되어 갔다. 금속화폐의 유통은 상업자본의 축적을 촉진하여 상업자본의 생산지배를 가능하게 했으며, 중세적 신분제도를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변화시

켜나갔다.¹⁾ 그에 따라 빈부갈등, 계층갈등, 신분갈등, 재산갈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문학 작품 역시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모습을 현실 소재로 삼아 창작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연구 성과 또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 예컨대, <공방전>, <전신전>, <상씨종족전> 등과 같이 돈을 의인화한 것에 대한 연구²⁾에서부터 致富나 治産談에 대한 연구,³⁾ 경제관념이나 화폐 경제의 사회상에 대한 연구,⁴⁾ 부에 대한 욕망이나 부자에 대한 인식⁵⁾ 등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 화폐나 재물을 이용한 재산의 증식과 축적, 상인과 상업 행위, 부에 대한 인식과 분배의 문제, 화폐로 인한 갈등 등 조선후기 사회 경제적 변모상과 문학 형상화의 관계가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재물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형상화된 문학 작품은

- 1)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86~107쪽.
- 2) 이학주, 「『錢神傳』을 통한 유가적 인생관 연구」, 『연민학지』 제3집, 연민학회, 1995 ; 이홍식, 「항해 홍길주의 『상씨종족전』 연구」, 『어문연구』 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 홍성남, 「조봉묵의 <공방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 서신혜, 「물재 송순기의 <錢神傳>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1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7.
- 3) 정하영, 「치부담에 나타난 윤리관-한문단편 '귀향'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9집, 이화어문학회, 1987 ; 이원수, 「조선후기 치부담의 성격과 의미」, 『인문논총』 18,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 4)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난 부의 구현양상과 그 의미,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1 ; 임형택, 「화폐에 대한 실학의 두 시각과 소설」, 『민족문학사연구』 18집, 민족문학사학회, 2001 ; 이민희,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다시 보는 고소설사』, 도서출판 보고사, 2011 ; 최기숙, 「'돈'의 표상성: 18·19세기 경제 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 『국제어문』 29집, 국제어문학회, 2004 ; 하성란, 「조선후기 문학의 화폐경제 반영 양상」, 동국대 박사논문, 2011.
- 5) 서신혜, 「부 이후 삶에 대한 선인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 제30집, 한국고전번역원, 2007 ; 최기숙, 「돈의 윤리와 문화 가치」, 『현대문학의 연구』 32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 서신혜, 「조선시대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몇 인식에 대한 연구」, 『고전과 해석』 9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송사소설이라 할 수 있다. 송사소설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이기심, 재산분배와 빈부갈등에 따른 불만, 절도와 같은 범죄적 행위, 재판에서 뇌물이 관여된 불공정한 판결 등 각종 문제점 등이 작품의 소재로 취택되어 잘 형상되어 있다. 송사소설에 대해서는 개별 작품 연구를 비롯하여 장르적 성격, 형성과정, 유형, 문학적 위상 등 전반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연구사를 진행해야 할 정도로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⁶⁾ 재산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룬 논의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송사소설을 연구한 이현홍 교수는 가족성원갈등 및 향촌사회의 계층갈등 유형에서 재산 또는 재물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⁷⁾ 신영주는 쥐를 의인화한 <서동지전>·<서대주전>·<서옥기>, 우화소설인 <황새결승>·<까치전>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로 표출된 구조적 모순을 검토하였고,⁸⁾ 신해진 교수는 송사소설 작품에 대한 꼼꼼한 주석 작업을 비롯하여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다.⁹⁾ 이러한 연구의 결과 개별 송사 작품에서 재물에 대한 탐욕, 재산분배갈등에 따른 불만, 뇌물이 관여된 불공정한 재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 문제가 깊이있게 분석되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려는 이유는 재물 관련 송사소설이 가정소설이나 우화소설 등 다른 유형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으며, 동일 송사소설 작품이라 하더라도 갈등 양상에 따라 그 유형이 달리 설정되어 논의됨으로써 재물에 관한 특성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한 경향

6) 주요 박사학위 논문만 소개해도 다음과 같다. 이현홍, 「조선조 송사소설 연구」, 부산대 박사, 1987 ; 김충실, 「송사형 고전소설 연구」, 이화여대 박사, 1991 ; 신영주, 「조선후기 송사소설 연구」, 상명대 박사, 1997 ; 박여범, 「송사소설의 전개 유형과 현실인식」, 전북대 박사, 2001 ; 박성태, 「조선후기 송사소설의 유형과 전개 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 2004.

7)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211~309쪽.

8)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213~232쪽.

9) 유영대·신해진, 『조선후기 우화소설』, 태학사, 1998 ;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도서출판 월인, 2003 ; 신해진,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사, 2008.

이 있었다. 재물을 소재로 한 송사소설은 그 작품 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인물간의 갈등도 매우 선명하기 때문에 송사소설의 갈등양상을 추가로 설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듯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들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재물 관련 송사소설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그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나아가 송사소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이 작품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송사 작품은 <김씨열행록>, <까치전>, <서대주전>, <양반전>, <유연전>, <장화홍련전>, <정수경전>, <황새결송> 등이다. 작품의 서지에 대해서는 해당 본문에서 언급할 것이다.

2.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의 기능

1) 재산 다툼과 송사의 발생

송사소설에서 재물¹⁰⁾은 물질적인 이해 다툼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의 요인이 되어 결국 송사의 발생 동인으로 작용한다. <유연전>, <장화홍련전>, <황새결송>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소설에는 재산을 둘러싸고 벌이는 인물들의 대립과 갈등이 작품 내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다.

<유연전>에는 재산이 사건 발단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치열한 송사의 다툼으로 비화된다.¹¹⁾ 재산을 둘러싸고 인물의 대립과 갈등 및 연계

10) 여기서 재물은 조선시대 화폐로 통용되었던 돈을 비롯하여 재산,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각종 물건 등을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한다.

11) 이 글과 관련하여 <유연전>에 대한 의미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현홍, 「실사의 소설화-유연전을 중심으로」, 『우해이병선박사화갑기념논총』, 1987 ; 정궁식, 「<유연전>에 나타난 상속과 그 갈등」, 『법사학연구』21, 한국법사학회, 2000

가 미묘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유연의 매부인 이지는 왕족의 후손이고, 그 부인은 유연의 첫째 누이이지만 일찍 죽었다. 이지는 처가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짜 유유를 설정하고 주변 인물과 모의하여 유연을 없애려 한다.¹²⁾ 가짜 유유 행세를 하던 채응규의 첩 춘수의 조사 중에서, “그분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간혹 ‘강가의 보리밭을 연이 감히 독점한다고?’ ‘내 처가의 재산을 연이 제 맘대로 한다는 것이 가당한가?’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64쪽)”¹³⁾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연이 처가 재산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이지는 상당히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차에 유유는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고, 만일 유연마저 없다면 이지 자신은 처가의 재산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셈이다. 그래서 그는 유연의 종매부인 심룡,¹⁴⁾ 유유의 처 백씨 등과 함께 모의하여, 채응규를 가짜 유유로 설정하고 유연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고, 추관이던 심통원에게도 청탁하여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하였다.

유연의 형수인 백씨는, “저의 지아비에게 성품이 좋지 못한 아우 연이란 자가 있는데, 재물을 탐함이 끝이 없어 진짜를 가짜라고 하는지라, 자기의 친형을 묶어 관아에 가두고는 사기꾼으로 뒤집어씌우고자 했습니다.(56쪽)”¹⁵⁾라고 하면서 시동생의 죄를 처결하여 아녀자의 원한을 씻어 달라고 판관에게 호소한다. 물론 이는 백씨의 무고이다. 그녀는 이지의

； 박성태, 「『유연전』에 나타난 가정 갈등 양상 연구」, 『인문과학』37,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12) 이현홍, 앞의 책(1997), 80~95쪽 및 289~295쪽.

13) <유연전>, “談間或言: ‘河邊麥田, 淵敢獨占耶?’ 又曰: ‘吾妻家產, 淵獨專搏, 可乎?’”(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도서출판 월인, 2003, 49쪽. 이하 인용되는 모든 작품의 페이지 수는 본문 끝의 () 속에 제시하고, 한문 원문이 있는 경우는 작품명, 페이지 수, 해당 원문을 각주에 명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14) 심룡 역시 유연의 숙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을 때, 후사가 없을 경우 유연 형제에게 그 땅을 되돌려주라는 언급을 받았던 터라 재산분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지와 같은 입장이었다.

15) <유연전>, 43쪽. “夫有不良弟淵, 貪貨無厭, 指眞爲僞, 縛兄官囚, 圖嫁淫禍”

음모를 묵인하고 가짜 유유인 채응규를 대면하려고도 하지 않는 등 증인을 조작하면서까지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결국 시동생이 죽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까닭은 바로 재물 욕심 때문이다. 남편이 가출하여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데다가 자식마저 없는 자신의 처지에서 유연이 가권을 통솔하고 조상을 봉제사하게 된다면 집안에서의 자신의 위상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녀는 시동생을 없애는데 적극 가담하게 된 것이다.

재물에 대한 이지와 백씨의 탐욕과 음모는 유연의 진술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매부 지는 저의 아버지가 특별히 저에게 좋은 땅을 주는 것을 보고, 제가 받는 총애를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종매부 심룡은 저의 백숙모 유씨가 일찍이 집의 재물을 그의 처에게 줄 때 ‘네가 만약 자식이 없다면 예원의 아들에게 주라’고 하여, 항상 재물을 빼앗길까 두려워 저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부 지와 종매부 심룡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암컷과 수컷이 되어, 서로 부르고 화답하여 세력을 떨치면서 어지러이 편벽된 말만을 일삼고 있습니다.(59쪽)”¹⁶⁾

(나) “차분히 화의 근본을 생각해보았더니, 오로지 뜻밖에 얻은 재물 때문인 것 같소. 당신은 선친이 특별히 주신 땅과 백숙모 유씨가 주신 문서를 관아에 알리고 없애버리시오. 그래도 원통함이 밝혀지지 않으면 황천후토와 부모의 영혼이 울고 그림을 널리 알려 밝힐 것이니, 당신은 밤마다 기도하여 운수 좋게 신의 가호를 받게 되거든 응규를 붙잡아 나의 구천에 떠도는 원혼을 위로하기를 바라오.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없어 더 쓰지 못하겠오.(61~62쪽)”¹⁷⁾

16) <유연전>, 45쪽. “亦厥有由。蓋視以臣父別給良田，忌臣怙寵，隆以臣伯叔母柳，嘗以家貨畀之其妻曰：‘汝若無子，可傳禮源之子。’隆常懼奪貨，猜視於臣。”

17) <유연전>, 47쪽. “尋思禍本，職由橫財，汝以先父別給，及伯叔母柳氏文券，告官而毀棄之。猶且不自白，則皇天后土，及父母之靈，昭布上下，汝其夜夜祝禱，幸假冥佑，

(가)는 유연의 초사 일부이다. ‘숨겨진 이유’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벌인 당사자들의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다. (나)는 옥에 갇힌 유연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뜻밖에 얻은 재물’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비롯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형이 사라진 지금 집안의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뜻밖에 얻은 재산이 되는 것이다. 유연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이 한 말이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상경하여 지극한 원통함을 밝혀달라고 부탁한다. 유연은 끝내 억울함을 간직한 채 사형이 집행되어 죽음을 맞이한다.¹⁸⁾

유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유연의 아내 이씨는 상경하여 사헌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린다.

“죽음을 당한 지아비 연은, 시때부 지가 재물을 차지하려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극형을 당했습니다. 그 미망인 아무개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에 부르짖어 보아도 원통함을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유유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 삼가 지아비 연이 죽음에 임해 남긴 유연을 바치옵니다.(63쪽)”¹⁹⁾

이씨의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재물을 차지하려는 다툼’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남편이 억울하게 극형을 당했으며, 지금 진짜 유유가 나타났으니 기왕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결국 <유연전>은 재산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사람이 연루되면서 대립과 갈등을 겪는 송사로 이어졌으며, 그

冀獲應珪，以慰我九地之冤。神昏氣乏，不盡書。”

18) 유연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 사형이 집행된 것은 종실인 이지과 당시 추관이었던 심통원과의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현홍, 앞의 책(1997), 289~295쪽 참조.

19) <유연전>, 48쪽. “強死人淵，因視爭財，枉伏極典。其未亡人某，叩地叫天，雪冤無路，今聞眞柳游出，謹以淵臨絕遺言一道呈上。”

과정에서 판결이 뒤바뀌는 곡절을 거치면서 유연의 옥사가 해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장화홍련전>에서는 장화의 친모가 남긴 재산을 장화가 시집가면 가져갈까 두려워 계모가 홍계를 꾸미는 것으로부터 비극이 심화된다.²⁰⁾ 후처로 들어온 허씨는 전처소생인 장화 자매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게다가 허씨는 남편의 장화자매에 대한 편애를 비롯하여 재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장화 자매를 더욱 미워한다.

“우리 본리 빈곤이 지니더니 전처의 지물이 만홀으로 지금 풍부이 살
 락 그디의 먹는 것이 다 전처의 지물이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
 동홀 비 이어늘 저 유아 등을 심히 괴롭게 하니 무슨 도리요 다시는 심
 히 구지 말나”²¹⁾

인용문은 장화 자매가 비통해하는 모습을 자주 본 배좌수가 허씨를 불러 꾸짖는 대목이다. 여기서 ‘전처의 재물’을 언급함으로써 재산 갈등을 암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²²⁾ 이를 계기로 허씨는 더욱 불측하여 장화 형제를 죽일 뜻을 두고 주야로 생각하다가 장화가 잉태한 것으로 홍계를 꾸미고 배좌수의 묵인하에 그녀를 죽인다. 언니의 죽음을 알게 된 홍련 역시 물에 빠져 죽고, 원혼이 된 홍련이 밤에 고을 사또인 전동호를 찾아와 그 사연을 호소한다.

“어미 지물 만삼고 노비가 천여구요 던답이 천여 석이요 보화는 거지

20) <장화홍련전>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이현홍, 「<장화홍련전>의 연구사적 검토」, 『고전소설 학습과 연구』, 신지서원, 2011, 229~242쪽 참조.

21) <장화홍련전>, 영창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쪽.

22) 한문본 <장화홍련전>에도 재산에 따른 갈등이 암시되어 있다. “時慶以時任座首在官府, 定婚於巨族, 通奇於後妻, 亟備昏需, 後妻性本貪器, 常欲殺二女, 聞昏奇恐產業之見蕩, 欲爲謀害.”(<장화홍련전>, 『嘉齊事實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08쪽) 및 “一日家君, 以時任座首, 定婚通奇, 修備婚具, 後母恐敗家業, 剝鼠造胎, 稱以墜胎”(『嘉齊事實錄』, 113쪽) 참조.

두량이라 소녀가 출가호오면 지물을 다 가질가 호여 식기지심을 품어
 소녀 형대를 죽여 지물을 탈취호여 제 즈식을 주고자 호야 주야로 희희
 뜻을 두었는지라(25쪽)”

계모가 자신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재물 때문임이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전처소생과 계모 사이의 불화와 이에 따른 갈등은 현실세계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재물을 둘러싸고 전처소생과 후처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여파로 살인이 발생하여 재판에서 그 진위가 밝혀지는 실사가 문헌에 있다. 1768년(영조 44년) 백필량·백필애 두 자매가 물에 빠져 자살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²³⁾ 표면적으로 후처 나씨와 자매 두 당사자가 싸우고 반목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솜값 80전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⁴⁾

이밖에 <황새결송>에서도 재물이 원인이 되어 송사 사건이 전개된다. 이 작품은 경상도의 어떤 부자가 일가친척 때문에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를 외화(外話)로 설정하고, 동물들의 노래 자랑을 內話로 배치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풍자한 소설이다. 부자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패악무도한 일가친척이 협박하고 횡포를 부리자 부자는 상경하여 형조에 소송했으나 악한 의물 공세에 넘어간 형조 관리의 부당한 판결 때문에 부자는 패소한다. 관청이라는 현실적 힘에 부딪힌 부자는 내화에서 동물들의 이야기에 빗대어 자신의 억울함을 풍자함으로써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역시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며, 이후 의물 때문에 부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송사소설에서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

23) 『흙흙신서』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장화홍련전>과 관련하여 계모와 전처 소생간의 갈등이 재물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제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시해 둔다. 정약용, 박석무·정해림 역주, 『역주 흙흙신서』 3, 현대실학사, 1999, 262~266쪽 참조.

24) 정약용, 『與猶堂全書』, 第五集政法集第三十九卷○欽欽新書卷十, “所以爲勃溪之端者, 不過曰棉絮之價八十耳.”

물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송사가 발생하여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며,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태에 직면한다. 따라서 재물 다툼은 송사의 발생 동인으로 작용하여 이후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축의 기능을 한다고 하겠다.

2) 뇌물 공여와 부당한 판결

송사소설 중에는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벗어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그 결과 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가 억울함을 당한 작품이 있다. <황새결송>, <서대주전>, <까치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²⁵⁾

<황새결송>에서 조상이 물려준 살림을 잘 관리하여 부유하게 지내는 한 부자에게 패악무도한 일가 친척인 악한이 부자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협박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다. 악한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부자는 서울에 가서 제소하고,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여 판결 날짜만 기다린다. 이에 비해 악한은 송사에서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청길을 넣기 위해 당상이며 낭청이며 서리·사령까지 뇌물을 제공한다. 서술자가 “즈고로 송스는 눈치있게 잘 돌면 니끼지 못홀 송스도 아모 탈 업시 득승ㅎ느니, 이는 니른바 녹비의 갈왈즈를 쓰미라.”²⁶⁾라고 말한 바와 같이 결국 뇌물을 사용한 패악무도한 악한이 송사에서 이긴다.

패소판결을 받은 부자는 마지막 진술에서 황새의 재판 이야기를 함으로써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판관의 잘못을 풍자한다. 즉 찌꼬

25) 이들 작품에 대해 이현홍 교수는 향촌사회의 계층갈등에서, 정출현 교수는 우화소설에서, 윤승준 교수는 송사형 우화소설에서, 신해진 교수는 서류 송사형 소설에서 그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이현홍, 앞의 책(1997), 255~286쪽;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윤승준, 『동물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월인, 1999, 186~206쪽; 신해진, 앞의 책, 1~50쪽.

26) <황새결송>(유영대·신해진, 『조선후기 우화소설선』, 태학사, 1998), 227쪽.

리·뽕꼭새·따오기가 서로 자기 울음소리가 예쁘다고 우기다가 이 일을 황새에게 물어 결판을 내기로 했다. 그 사이에 따오기는 황새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먹이와 장식품들을 가지고 황새를 찾아가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었다. 황새는 “송니(訟理)는 곡직을 불게하고 쏘며 여디기의 잇느니, 니른바 니혈영비혈영이라 엇지 네 일을 범연이 흐여 주랴?(234쪽)”라고 하면서 재판에 유리하게 해 줄 것임을 암시한다. 재판일이 되자 황새는 그들의 노래를 차례로 들어보고 나서 따오기의 노래가 제일 예쁘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

“니러툇 처결호여 싸옥성을 상성으로 처결호여 주오니, 그런 증성이 라도 뇌물을 먹은즉 집의오결(執意誤決)호여 그 쪼꼬리와 벽국시의괴 못할 노릇 호여시니, 엇지 앙급즈손 아니 호오리잇가? 이러므로 증성들도 물욕에 잠겨 틀닌 노릇을 잘호기로 그 놈을 지 아들 지 자식이라 호고 우섯이니, 이제 서울 법관도 여츠호오니 소인의 일은 발서 판이 나스미 부절업는 말호여 쓸디 업스니 이제 물너가느이다.” 하니, 형조 관원들이 드답홀 말이 업서 가장 붓고려 호더라.(237~238쪽)

시골 부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형조 관원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한다. 따오기에게 뇌물을 받은 황새가 그릇된 판결을 내린 결과 ‘개 아들 개 자식’이라는 비웃음을 받았는데,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형조 관원은 과연 무엇에 비유될까. 아마도 그에 못지않은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결국 <황새결송>에서는 뇌물 공여로 인한 부당판결이 횡행한 현실 세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하겠다.

<서대주전>에는 뇌물이 제공되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재물이 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재물이 없는 자는 도리어 유죄가 되는 부조리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타남주의 알밤과 재산을 탈취한 서대주는 부정적 면모가 부각되어 있고, 재산을 강탈당한 타남주는

‘매우 부지런한’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다.²⁷⁾ 서대주에게 재산을 탈취당한 정황을 포착한 타남주가 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한다. 원이 형리를 보내어 서대주를 잡아오게 하는데, 서대주가 은근히 형리를 유혹한다.

“옛말에 ‘죽을 약 옆에 또한 살 약도 있다.’고 했소이다. 저 때문에 이 험한 곳까지 오셨는데 아직 술 한 잔을 권하지도 않았고 따뜻한 정조차도 표하지 못하였으니, 집주인 된 자의 간절한 부탁을 어찌해야 하시겠소?” 서생이 거듭거듭 간청하여 옷소매를 끌고 들어갔다.²⁸⁾

뇌물 제공이 암시되는 장면이다. 사령은 이를 가련하게 여겨 마지못해 허락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은 뇌물 공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슬 퍼런 형리의 마음이 느슨해지자 서대주는 암쥐에게 옷차림을 화려하게 꾸미고 음식물을 바치게 하는 등 향응과 뇌물 공세를 펼친다. 사령은 술을 받아 마시고는 정신이 흐렸다가 깨어나면서 비로소 세상의 재미를 깨달은 듯 애초에 서대주를 잡아 혼내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만다. 또한 서대주로부터 야광주 한 쌍을 뇌물 받고서는 기쁘기 짝이 없어 한다. 사령은 겉으로는 사양했을지라도 속으로는 실로 바라는 것이어서 옷 속에다 단단히 넣어두고는, 서대주에게 “받은 물건이 너무 많아 감사하기 그지없소.”²⁹⁾라며 고마워한다.

27) <서대주전>과 비슷한 작품으로 <서동지전>이 있다. 이 두 작품은 이본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별개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작품은 대상 인물의 궁·부정 및 풍자의 대상이 다르고 판결 또한 정반대이다. 이 글에서는 재물에 대한 성격이 분명하게 제시된 한문본 <서대주전>을 텍스트로 삼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서대주전>의 텍스트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우연우화소설』에 수록된 것으로 하였으며, 신해진, 「<서대주전> 해제 및 역주」(『고전과 해석』 제1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6, 235~282쪽)를 참고하였다.

28) <서대주전>, 540쪽. “然古語云, ‘死藥之傍, 尙有生藥.’ 由我以致此險地, 而未勸一盞, 無物表情, 其主之申付託如何哉?” 再三懇請, 携袖而入.

29) <서대주전>, 543쪽. “爲賜甚多, 感謝無已.”

뇌물은 반드시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서대주는 사령에게 자신이 관아에 갈 때 포승줄로 묶여 잡혀 가는 것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가다가 관아에 이르러 법대로 잡아들여 주길 부탁한다. 이것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것일 뿐 그 이면에는 아마도 판결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청탁이 있지 않았나 한다. 뇌물 수수는 그 처음이 어렵지 주고받음이 익숙해진 이후에는 뇌물을 받은 자가 제공자의 편의를 돌봐주는 것이 예사이다. 사령은 이미 뇌물을 받았던 터라 서대주의 편의를 돌봐주고 심지어 수령의 판결에까지 관여하게 된다. 예컨대 수령이 죄인을 심리하고자 할 때 사령이 심문을 연기하도록 은근히 말한다.

“날이 이미 저물어 심문하기가 어려우니 잠깐 하옥하였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심문하는 채비를 차리시되, 둘 모두 잡아들여서 상세히 조사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사리에 맞고 또 마땅하옵니다.”³⁰⁾

이는 뇌물의 효과이다. 작품에서 판결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수령이 서대주의 잘못을 꾸짖자 서대주는 간사한 말로써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도둑질을 부정하며, 심지어 타남주를 무고한다. 그러자 수령은 피해자인 타남주에게 도리어 벌을 내림으로써 오판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풍자와 비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된 결말이 아닌가 한다. 서술자는 작품의 말미에서 “원님의 송사 처리가 어찌 그릇되지 않았으랴! 대개 송사 처리는 이같이 어려우니, 벼슬을 하는 자가 살피지 않으면 옳겠는가!”³¹⁾라면서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까치전> 역시 뇌물을 공여하여 잘못된 판결을 이끌어 낸 작품이다. 비둘기가 고의적으로 까치를 죽이고는 뇌물을 제공하여 우연한 살인으

30) <서대주전>, 544쪽. “日已晚矣, 推問有難, 姑爲下獄, 而待明日, 座起, 兩雙並爲拿入, 而詳細查問, 則事可便當矣.”

31) <서대주전>, 547쪽. 主倅之聽訟, 豈不誤哉? 蓋聽訟之難如此, 爲官者, 可不察歟!

로 둔갑시키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작품에서 까치를 살해한 비둘기는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비둘기의 처자 동생이 심야에 동지를 찾아가 금백주옥과 채단을 많이 주면서 희살로 처리할 것을 부탁한다. 그러자 동지는, “유전이면 사귀신이라’ 하였으니 염려치 말라. 내 들으니 ‘책방 구진과 수청기생 앵무가 일충한다’ 하오니, 금은보패를 드려 좌우 청축한 후에 여차여차하자.”³²⁾라는 약속을 정하고, “각청 두목과 제번 관속에게 뇌물 쓰고 이리이리 하면 고독 단신 암까치 어찌할 수 없으리니, 그런즉 자연 희살이 되리라.(97쪽)”라는 방책을 일러 준다. 그 결과 판결은 희살로 처리된다. 비둘기는 대희하여 춤추며 하는 말이, “큰 죄를 면키 어렵단 말은 허언이요, 유전이면 사귀신이란 말이 옳도다.(100쪽)”하며 의기양양하여 돌아간다. 따라서 이 작품 역시 뇌물 제공의 결과 잘못된 판결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송사소설에서는 재물이 뇌물 역할을 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재판이 부당한 판결로 귀결되는 사회 부조리를 담고 있다. 여기서 재물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재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정당해야 할 판결이 부당하게 되는 방향으로 재물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부정한 재물이 되는 것이다.

3) 위기 해소와 결핍의 충족

재물 제공이 적대적 인물에게는 뇌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소설에서 긍정적인 인물의 경우 때로는 위기 순간을 모면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있다. <정수경전>에는 재물이 정수경의 목숨을 살리는 수단이 되었고, <김씨열행록>에서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김씨를 구하기 위하여 재물이 이용되었다. 한편, <양반전>에서는 경제적 궁핍을 해소하고 현실에서 결핍된 신분 상승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32) <까치전>(유영대·신해진, 『조선후기 우화소설선』, 태학사, 1998), 97쪽.

재물 공여자가 뇌물이라는 취지를 가지지 않고 선의로 제공하였고, 또 그것을 받은 자가 뇌물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재물이 뇌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을 것이다. <정수경전>에서 이소저와 정수경 사이에서 은을 수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쌈당한 정수경에게 이소저는 백년불망수은금 세 되를 내어준다. 수경은, “지금 죽는 사람이 은자는 갖다가 무엇하리오?”³³⁾라면서 그녀의 호의를 거절한다. 이소저는 “수재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도다. 길가의 행인이라도 그 재물을 탐하여 물어주고 가나니, 이것이 비록 약소하나 가져가시면 요행으로 살아날 곳이 있을까 하노라.(365쪽)”라면서 은을 제공한다. 이소저가 정수경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정수경 역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은이 결국 정수경의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소저와 작별한 정수경이 창두에게 잡혀 절벽 위에서 투강당할 무렵에 담배나 한 대 먹고 죽자며 창두에게 담배를 요청한다. 창두가 담배를 건네자 정수경은, “이 은자는 내가 집에서 올 때에 노자로 가지고 온 것인데 이 지경을 당하여 무엇에 쓰리오? 죽는 사람의 재물이라 더럽다 말고 화주채나 보태라.(369쪽)”고 하면서 이소저에게 받은 은자를 내어 자기를 죽이러 온 이소저 창두에게 건넨다. 은을 받은 늙은 창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정수경을 살려 보낸다.

“대저 사람이 세상에 나서 착한 일을 하면 천지신명이 도우시려니와, 악한 일을 하면 목전에 양화를 만나니, 이 아이 이팔청춘으로 천리 객지에 무죄하게 죽은즉 그 아니 불쌍한가? 하물며 그 아이 재물을 받았으니 우리만 알고 살려보내고 누설치 말면 천지신명밖에 누가 알리오?(369쪽)”

33) <정두경전>, 이상택·이종목, 『화산중봉기·민시영전·정두경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369쪽. 작품에서 남주인공의 이름이 ‘두경’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널리 알려진 이름인 ‘수경’으로 표시한다.

정수경이 창두들에게 건넨 은이 뇌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죽는다면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는 입장에서 주었다면 그 은자가 단순한 호의일 수 있고, 요행을 바라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은자를 주었다면 그것은 뇌물의 성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은자 때문에 정수경은 위기를 모면하고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백면서생인 정수경으로서는 재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이소저의 입장에서는 재물의 효용가치와 그것이 초래할 영향력을 짐작하였던 것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정수경에게 이소저가 은자를 줄 때는 반드시 긴요하게 쓰일 일이 있었음을 예측한 것이다. 결국 그 은자와 정수경의 목숨이 교환된 셈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재물은 위기해소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김씨열행록>에서는 두 사건이 병렬되어 있다. 가정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후처 유씨가 전처소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하나이며, 김씨와 시아버지의 첩 화씨와의 갈등에서 김씨의 시아버지 살해 누명 사건이 다른 하나이다. 주인공인 김씨 부인에게 있어서 앞의 사건은 신랑의 원수를 찾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살인 누명을 벗는 일이며, 뒤의 사건은 시부 살해의 누명을 벗는 일이다. 앞의 사건은 김씨가 남장하여 계교로써 몸소 사건을 해결하지만, 뒤의 사건은 누명을 쓴 채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김씨의 시비 옥매가 재물을 이용하여 사건 해결의 계기를 마련한다.

옥매는 상전인 김씨가 화씨에게 일방적으로 모해당하자 화씨를 독살하려다가 도리어 장시랑을 죽인다. 그 결과 김씨는 살인교사의 누명을 쓰고 옥매와 함께 옥에 갇힌다. 이때 옥매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줄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과 얼굴이 닮은 동생 급매를 대신 옥에 있게 한다.

무물(無物)이면 불성이라. 여한 재물이든지 백여 금만 가져다가 옥사

장을 주고 옥문을 열어 달라 청하면 가히 될 것이니, 형제가 모인 후에 의복을 바꾸어 입고 내가 나가면 제 어찌 알리오. 바빠 행하라.³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였다. 옥매는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 옥사장을 속이고 동생 급매를 옥에 대신 남긴 뒤 자신은 탈출하여 서울로 올라가 신문고를 울리고 사건의 내막을 알린 뒤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김씨열행록>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김씨를 구하기 위하여 그 시비 옥매가 옥졸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의 동생과 몸을 바꾸어 탈옥하여 사건의 진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위기를 벗어나고 사건을 해결할 수단으로써 재물이 이용된 것이다.

한편, <양반전>에서는 재물이 현실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정선 고을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관곡을 빌려 먹은 것이 쌓여 천석이나 되었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밤낮 울기만 할 뿐이고, 그 처는 양반이라는 것이 한 뿐어치도 못 된다면서 냉소한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선 양반에게는 재물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같은 고을의 천부는 부자이지만 늘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생활을 한다. 그래서 양반 신분을 획득하여 사회적 천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쌍방의 결핍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재물이다. 두 사람은 각자가 처한 결핍된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양반신분과 재물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정선 양반의 경제적인 궁핍과 천부의 신분상승 욕망 때문에 양반신분과 재물을 사사로이 주고받은 것은 송사의 동인으로 작용한다.³⁵⁾ 군수는 개인끼리 사사로이 사고팔고 했을 뿐 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송사의 빌미가 된다고 하였다. 이후 군수에 의해 문건 1, 2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양반의 실체를 깨달은 천부는 양반신분 획득의 욕구를 단념한

34) <김씨열행록>, 김기동·전규태 편, 서문당, 1984, 221쪽.

35) 이현홍, 앞의 책(2011), 306쪽.

다. 천부가 각성해서 양반신분을 포기하였지만, 결국 <양반전>을 통해 볼 때 재물을 수단으로 하여 양반신분을 팔고사는 당대 사회의 일면을 잘 포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송사소설에는 인물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물이 사용된 사례가 다루어져 있다. <정수경전>에서는 재물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방편이 되었고, <김씨열행록>에서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재물이 사용되었으며, <양반전>에서는 재물이 현실의 결핍된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3.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의 의미

지금까지 재물을 소재로 한 송사소설을 대상으로 작품에서의 그 기능을 살펴보았다.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의 대립과 음모로 송사가 빚어지며, 송사 과정에서 재물이 뇌물의 수단으로 제공되어 부당한 판결로 귀결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재물 자체에 부정적인 속성이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물은 위기의 순간 목숨을 구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쓰이는가 하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재물이 송사소설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송사소설 이외에 재물을 다룬 작품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재물 관련 송사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등 소설의 구성에서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실적 주요 관심사를 다룬 송사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의 일상 현실에서 흔히 발견되는 평범한 군상들이다. 실제 사건을 다룬 傳 작품 <유연전>에서 유유·유연·이지·

심룡·백씨 등은 실존 인물이므로 말할 것도 없고, <장화홍련전>은 함경도 철산 지방 수령을 지낸 실존 인물의 행적에 기록될 만큼 현실성을 지닌 내용으로 장화·홍련·허씨 등은 일상 공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인물이다. 또한 <양반전>에서 정선 양반과 천부, <황새결송>에서의 시골부자·그의 친척·판관 등은 일상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로 구체적인 생동감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현실적인 소재와 일상의 평범한 인물이 등장하는 송사소설의 구성과 사건 전개 방식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과법칙에 의해 이루어진다.³⁶⁾ <유연전>에서는 처가 재산의 분배에 불만을 품은 이지가 유유와 닮은 채응규를 가짜 유유로 만들고, 시동생이 재산을 독차지할까 걱정하는 백씨를 자기 편으로 만들며, 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추관인 심통원에게 청을 넣어 사건을 조작하는 일련의 행위는 매우 사실적이다. 이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유연 및 그 처의 행위 또한 현실적인 인과 논리로 이루어져 있다. 초월계가 개입하거나 우연성이 배제된 이러한 사건의 조작과 주변 인물의 대응방식은 <황새결송>이나 <서대주전>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양반전>에서 돈을 매개로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행위, <김씨열행록>에서 옥매가 뇌물을 써서 옥을 벗어나는 행위, <정수경전>에서 정수경이 이소저가 준 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행위 등은 모두 현실적인 인과 논리에 의해 사건이 전개된다. <장화홍련전>의 경우 비록 재생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장화 자매와 허씨가 빚는 갈등은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요소가 있었기에 이어지는 사건 전개가 현실적인 인과 논리에 의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재물은 비뚤어진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신분관계의 역전을 가져오기도 한다. 재물에서 비롯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때문에 송사소설에서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심하게 일그러져 나타나기도 한다. 돈이 교환가치에서 사용가치로 바뀌고, 그에 따라 공동체를 중시하

36) 이해 대해서는 이현홍(1997), 383~387쪽 참조.

던 인간관계에서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이기주의와 타산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물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진짜를 가짜로 만드는 추악한 현실 상황이 일어난다. <유연전>에서 처가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이지는 가짜 유유를 설정하고 주변 사람과 공모하여 이를 진짜라고 우긴다. <서대주전>에서는 재물을 탈취해 간 진짜 도둑이 가짜가 되고, 재물을 빼앗긴 다람쥐가 진짜 도둑으로 내몰리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한다. 재물 자체의 성격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 비뚤어진 인간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혼인에 의해 ‘처남-매부’ 및 ‘시동생-형수’로 맺어진 유연을 재산의 분배 때문에 모해하여 죽게 만든 것은 극단적인 인간관계의 비뚤어짐이다. 혼인이라는 사회제도에서 비롯된 정상적인 인간관계보다는 타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물질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그 관계를 달리하는 왜곡된 인간관계인 것이다. 또한 재물은 사회적으로 설정된 신분관계를 역전시키기도 한다. <양반전>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은 현실적으로 재물이 필요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천부에게는 재물을 수단으로 하여 합법 내지는 비합법적으로 신분상승을 꾀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나마 양반이 천민으로 몰락하고, 천민이 양반으로 상승하는 신분관계의 역전이 생기기도 하였다.

나아가 재물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인간관계의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친소의 구분을 결정짓기도 한다.³⁷⁾ 송사소설에서 거리화의 문제를 촉발하는 것은 바로 재물인 것이며, 이는 인간관계의 형성에도 밀접히 작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황새결송>에서 따오기의 노래 실력은 셋 중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뒤떨어진다. 따오기가 판단할 때 황새와의 거리

37) 여기서 거리란 멀리하기와 가까이하기를 말한다. 인간관계의 형성이란 거리를 만드는 동시에 그 거리를 특정한 범위 안으로 수습하기도 한다. 예컨대, 송사소설에서 멀리한다는 것은 관관이 너물을 주지 않는 자는 멀리하고, 너물을 준 자는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거리에 대해서는 G. 짐멜, 안준섭 외 공역, 『돈의 철학』, 한길사, 1983, 587~597쪽 참조.

가 가장 멀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오기로서는 이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매개가 바로 재물인 것이다. 반면에 찔꼬리는 자신의 실력을 자부하여 객관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거리 조정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장 가깝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멀게 되었고,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장 가까워지고 말았다. 황새에게는 따오기나 찔꼬리 모두 자신에게 일정한 거리가 있는 대상이다. 그런데 따오기에 의해 객관적인 거리의 균열이 생겼고 판결에도 사심이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재물이라는 것이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매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인간사회에서도 친소를 구분짓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거리조성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재물이 단순히 경제적인 교환 행위를 넘어 인간 사회 일반의 관계맺음으로까지 확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의미가 된다 할 것이다.

재물을 다룬 송사소설이 동일한 소재를 다룬 다른 서사물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³⁸⁾ 판소리계 소설인 <심청전>, <춘향전>, <홍부전> 등에도 돈이나 재물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지만, 재물을 다룬 가장 대표적인 서사갈래는 야담 특히 치산담이나 치부담일 것이다. 야담에서는 대체로 재물을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그리고 인물간의 갈등이 대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부각되어 있다. 재물을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매점매석이나 무역을 통해 부를 이룬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띠기도 하지만, 치부담은 사실의 형상화라기보다 욕망과 꿈의 형상화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³⁹⁾

38) 재물 관련 서사물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그 동질성이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나 이 글에서는 주로 야담의 인물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할 것이다. 세부적인 비교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39) 이원수, 「조선후기 치부담의 성격과 의미」, 『인문논총』 제18집,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109~123쪽.

그렇기에 ‘음덕을 베풀 결과 복이 뒤따른다’는 식의 인과론적 신비주의가 마련됨으로써 송사소설의 현실적인 논리전개와는 구분이 된다. 인물의 관계에서도 대비가 된다. 야담에서는 상대와의 관계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결정되거나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주체의 致富 행위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에 비해 송사소설에서는 재물이라는 대상을 둘러싸고 주체와 상대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대립하는 길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 의해 자신의 행위에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상황이나 국면이 변모하면서 서사가 진행된다. 재물을 다룬 야담이 조선후기 시대적 상황을 대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는 있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관념성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비해 송사소설에서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사회 현상의 꾀진한 반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재물을 다룬 송사소설은 이전의 서사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으며, 현실에서 재물을 둘러싸고 대립 및 갈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욕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 관계와 신분적 서열을 포함한 사회적 인간관계가 해체되는 일이 현실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였고, 또 이야기로 향유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재물과 관련된 파행적 행동이 문제적 담론으로서 자주 거론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송사소설에서 소재로 사용된 재물이 작품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간략히 정리하여

마무리하면 다음과 같다.

송사소설에 나타난 재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송사소설에서는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인물간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송사가 발생하여 음모가 빚어지는 등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며,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따라서 재물 다툼은 송사의 발생 동인이 되며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축의 기능을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재물이 재판 과정에서 뇌물 역할을 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재판이 부당한 판결로 귀결되는 사회 부조리를 담고 있다. 재물 자체에 부정적인 속성이 있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부 작품에서 재물은 위기의 순간 목숨을 구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쓰이는가 하면, 인물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현실에서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재물은 송사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재물 관련 송사소설은 사건이 발생하고 내용이 전개되는데 있어 현실적인 소재와 일상의 인물이 등장하여 현실적인 인과논리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우 사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재물은 물질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비뚤어진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때로는 신분관계의 역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아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친소의 거리를 조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돈이나 재물이 단순히 경제적인 교환 행위를 넘어 인간 사회 일반의 관계맺음으로까지 확대하여 논의될 수 있는 의미가 된다 할 것이다. 재물을 다룬 송사소설이 동일 소재 다른 서사물에 비해 인물간의 대립관계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의 현장을 생동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현상의 찌푸린 반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재물을 다룬 송사소설은 이전의 다른 서사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嘉齊事實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김씨열행록>(김기동·전규태 편, 서문당, 1984)
<까치전>(유영대·신해진, 『조선후기 우화소설선』, 태학사, 1998)
<서대주전>(신해진, 「<서대주전> 해제 및 역주」, 『고전과 해석』 제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6 및 장효현 외,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우언우화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유연전>(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도서출판 월인, 2003)
<장화홍련전>(영창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수경전>(이상택·이종묵, 『화산중봉기·민시영전·정두경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황새결승>(유영대·신해진, 『조선후기 우화소설선』, 태학사, 1998)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1~324쪽.
서신혜, 「한문단편에 나타나는 인물의 재물관 변화 방향과 그 의미」, 『온지논총』 제21집, 온지학회, 2009, 129~153쪽.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1~323쪽.
신해진,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사, 2008, 1~397쪽.
윤승준, 『동물 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월인, 1999, 1~313쪽.
이민희,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다시 보는 고소설사』, 도서출판 보고사, 2011, 185~214쪽.
이원수, 「조선후기 치부담의 성격과 의미」, 『인문논총』 제18집, 경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4, 109~123쪽.
이현홍, 『한국송사소설연구』, 삼지원, 1997, 1~454쪽.
이현홍, 『고전소설 학습과 연구』, 신지서원, 2011, 1~438쪽.
정궁식, 「<유연전>에 나타난 상속과 그 갈등」, 『법사학연구』 제21호, 한

국법사학회, 2000, 83~100쪽.

정하영, 「치부담에 나타난 윤리관-한문단편 ‘귀향’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9집, 이화어문학회, 1987, 151~169쪽.

최기숙, 「‘돈’의 표상성: 18·19세기 경제 관념의 문학적 형상화 양상-18·19세기 야담집 소재 ‘돈’ 관련 일화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29집, 국제어문학회, 2004, 261~297쪽.

하성란, 「조선후기 문학의 화폐경제 반영 양상」,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2011, 1~135쪽.

<Abstract>

The function and meaning of property represented in a law court novel

Lee, Byeong-Jik*

This thesis is to scrutinize what function the property has in a law court novel and what it means.

The function of property represented in a law court novel is like this. In a law court, human greed about the property causes people to have a feeling of confrontation, to make the trial and even to commit murder. Therefore, the property plays a big role in making the incident forward. Also, people use the property as a means of bribery. It makes the court the wrong judgement which leads to the absurdity of society. Sometimes it is used as a way of getting out of the trouble when people are in a dangerous situation.

The property given in a law court novel has many meanings as follows. First, the property reflects various social situations and makes the incident forward according to reality rules. Second, it forms invalid human relationships and whether he has big property or not has something t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people. Lastly, this law court novel reveals the complicated conflicts which people make with property.

* Busan Geumseong High School teacher.

Key Words : a law court novel, wealth, bribery, wrong judgement,
greed, reality.

■ 논문접수 : 2012년 10월 30일

■ 심사완료 : 2012년 11월 12일

■ 게재확정 : 2012년 11월 15일